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신정론으로 읽는 하박국서

김기현(침신대)

1. 서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불러낸다. 어찌하여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¹ 구약성경의 탄식시, 지혜문학, 예언문학은 이 물음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기다리며, 예배할 것인가를 묻는다.² 하박국서는 이러한 신학적 긴장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된 문헌 가운데 하나이다. 예언자는 유다 내부의 폭력과 불의,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라는

1 신정론의 개념에 대해서는 Ian A. McFarland, "Theodicy", Ian A. McFarland/David A. S. Fergusson/Karen Kilby/Iain R. Torrance(ed.),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499-501을 보라.

2 성서와 고통의 관계를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읽는 논의로는 데이비드 M. 카, 「거룩한 회복 탄력성: 트라우마로 읽는 성경」 (차준희 옮김), (서울: 감은사, 2022), 25를 보라. 원제 Carr, David M., *Holy Resilience: The Bible's Traumatic Origi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이중 위기 속에서 “어찌하여”(לָמָּה 라마/어찌하여, 합 1:3)와 “어찌하여 … 잠잠하시나이까”(לָמָּה…תַּחַתְּמוּ, 합 1:13)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묻는 신앙 내부의 항의이다.

하박국서를 신정론으로 읽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엘리자베스 악테마이어(Elizabeth Achtemeier)는 하박국서가 하나님의 정의를 논증하거나 변호하는 문서라기보다, 이미 전제된 하나님의 의로움이 역사 안에서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신자의 믿음을 다룬다고 본다.³ 이 견해는 하박국서가 악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포착한다. 그러나 하박국의 질문을 단지 성취 시점에 대한 인내의 문제로만 축소할 수는 없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과 심판 방식에 항의한다. 따라서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데 있지 않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며 왜 더 큰 악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묻는 데 있다.

하박국서 연구는 대체로 세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첫째, 신학적 연구들은 하박국서의 중심 문제를 하나님의 정의, 악인의 번영,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의 문제로 파악해 왔다. 랄프 스미스, 도널드 고원, 제임스 크렌쇼 등은 하박국서가 단순한 심판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신정론적 문헌임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⁴ 그러나 많은 경우 논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선언이

3 하박국서가 하나님의 정의를 논증하거나 변호하는 책이라기보다, 이미 전제된 하나님의 의로움이 역사 안에서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다룬다는 견해는 엘리자베스 악테마이어, 「나훔-말라기: 현대성서주석」(민경진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65-66을 보라. 원제 *Elizabeth Achtemeier, Nahum-Malachi,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1986).

4 하박국서의 중심 주제를 신정론으로 보는 대표적 연구로는 Ralph L. Smith, *Micah-Malachi* (Word Biblical Commentary 32; Waco: Word, 1984), 145; Donald E. Gowan, *The Triumph of Faith in Habakkuk* (Eugene, OR: Wipf and Stock, 2009), 31; James L.

나 “탄식에서 찬양으로의 전환”이라는 신학적 요약에 머문다. 둘째, 문학적·구조적 연구들은 하박국서의 질문-응답 구조, 저주 선언, 시편적 기도와 신현 묘사의 배열에 주목해 왔다.⁵ 이러한 연구는 하박국서가 치밀한 문학적 흐름을 지닌 책임을 보여 주었으나, 구조가 신정론적 긴장을 어떻게 발생시키고 지연시키며 전환시키는지까지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셋째, 장르 연구는 하박국서가 탄식, 신탁, 저주, 기도와 찬양을 결합한다는 점을 밝혀 왔다.⁶ 그러나 각 장르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칠 경우, 왜 탄식이 찬양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이동이 신정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게 남는다.

최근 논의 가운데 화이트헤드(Philip Whitehead)의 “유보된 신정론”(theodicy deferred)은 하박국서가 악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논리적인 해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포착한다.⁷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고, 그 성취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놓인다. 그러나 이 개념을 하박국서 전체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보”가 단지 해답의 지연을 뜻한다면, 하박국서의 결말은 미완의 침묵으로 남게 된다. 본 논문은 화이트헤드의 통찰을 수용하되, 이

Crenshaw, “Theodicy in the Book of the Twelve”, Paul L. Redditt/Aaron Scharf(ed.),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176을 보라.

- 5 하박국서를 사회적 차원의 신정론으로 읽는 논의는 Walter Brueggemann, “Theodicy in a Social Dimens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 (1985), 3-25를 보라. 하박국서의 구조적 통일성과 신정론적 전개에 대해서는 Dong-Weon Lim, “Structural Analysis of the Book of Habakkuk”,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72 (2010), 69-86을 보라.
- 6 하박국서가 기도, 신탁, 신현의 복합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논의는 Michael E. W. Thompson, “Prayer, Oracle and Theophany: The Book of Habakkuk”, *Tyndale Bulletin* 44, no. 1 (1993), 34-53을 보라.
- 7 화이트헤드의 “유보된 신정론” 개념에 대해서는 Philip Whitehead, “Habakkuk and the Problem of Suffering: Theodicy Deferred”,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10, no. 2 (2016), 265-281을 보라.

를 본문 내부의 구조와 장르 전환, 특히 합 2:4의 אֱלֹהֵינוּ와 합 3장의 신현 찬양을 통해 재해석한다. 하박국서에서 유보는 해답의 부재가 아니라, 지연된 정의 앞에서 의인이 신실함으로 살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 기억을 예배적으로 재현하도록 요구하는 문학적·신학적 장치이다.⁸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하박국서는 악과 고난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신정론적 응답을 형성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하박국서의 구조, 장르 전환, 히브리어 핵심어는 예언자의 항의를 어떻게 기다림과 찬양의 응답으로 재배치하는가?

본 논문은 하박국서의 신정론이 악에 대한 이론적 해명이 아니라, 지연된 정의 앞에서 의인의 신실함과 공동체의 예배적 기억을 형성하는 실천적 신정론임을 논증한다.⁹ 이를 위해 먼저 질문-응답-기다림-찬양으로 이어지는 하박국서의 구조가 신정론적 긴장을 어떻게 배열하는지 살핀다. 다음으로 탄식, 신탁, 저주, 기도와 찬양이라는 장르 전환이 예언자의 항의를 어떻게 공동체적 예배 언어로 확장하는지 분석한다. 이어서 합 2:4의 אֱלֹהֵינוּ를 내면적 신념이 아니라 지연된 정의 앞에서 지속되는 관계적 신실함으로 해석하고, 합 3장의 신현 찬양이 탄식의 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 구원 행위를 현재의 위기 속에 소환하는 기억의 행위임을 밝힌다.

8 하박국서의 신정론을 단순한 해답 제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신앙적 응답으로 읽는 논의는 James L. Crenshaw, *Defending God: Biblical Responses to the Problem of Evi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6-17; Charles M. Cameron, "A Biblical Approach to Theodicy", *Evangel* 10, no. 2 (1992), 25-29를 보라.

9 하박국서의 질문-응답 구조와 본문 형성 문제에 대해서는 David J. Fuller, "Empirical Models for the Compositional History of Habakkuk", 「구약논단」 30, no. 2 (2024), 238-266을 보라. 하박국서의 언어적 전개와 긴장-해소 구조에 대해서는 David J. Fuller, "Tension and Resolution in Habakkuk: Linguistic Steps from Confusion to Healing", *Canon & Culture* 17, no. 2 (2023), 99-117을 보라.

2. 구조로 본 하박국의 신정론

하박국서는 전체 세 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문헌이지만, 그 내부에는 고난과 탄원,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 종말론적 희망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밀도 있게 교차한다. 본 장은 하박국서의 질문-응답 배열이 그 자체로 신정론적 긴장을 단계화하는 구조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언자의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이라는 반복 구조를 중심으로 하박국서의 신정론적 흐름을 분석한다.¹⁰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과 응답이 단순히 교대로 배열된다는 사실이 아니다. 첫 질문은 유다 내부의 불의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고, 첫 응답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라는 더 큰 신정론적 난제를 낳는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 방식 자체에 대한 항의로 심화되며, 두 번째 응답은 즉각적 해명 대신 기다림과 신실함을 요청한다.¹¹ 그러므로 하박국서의 구조는 신정론적 긴장을 곧바로 해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긴장을 심화시킨 뒤, 의인의 신실함과 예배적 기억의 자리로 재배치한다. 본 장은 이러한 사건 배열과 대화 구조가 신정론적 긴장을 어떻게 단계화하는지를 다룬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긴장이 어떤 문학 장르와 발화 양식으로 표현되고 전환되는지를 살필 것이다.

1) 신정론적 문제 제기: 하나님의 침묵(1:1-4)

하박국서의 서두는 예언자의 항의로 시작된다. “어찌하여 악을 보

10 하박국서의 신정론이 논리적 해명보다 기다림과 신실함의 실천으로 이동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Whitehead, 윗글, 274-275, 280-281을 보라.

11 하박국 1:2-4의 항의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Gowan, 윗글, 8;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6), 471을 보라.

고도 가만히 계십니까?”(1:3)라는 질문은 단순한 개인적 탄식이 아니다. 이는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신학적 문제 제기이며, 고전적 신정론의 출발점, 곧 하나님의 정의와 경험적 현실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¹² 예언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침묵을 항의함으로써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기초한 신학적 항의를 수행한다.

이 첫 단락의 구조적 기능은 신정론적 긴장을 발생시키는 데 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추상적 명제로 제시하지 않고, 의인이 경험하는 폭력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의 불일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1:1-4는 문제의 배경이 아니라 논문 전체의 신정론적 동력을 형성하는 출발점이다.

2)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악을 통한 심판(1:5-11)

하나님은 갈대아인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으로 응답하신다.¹³ 갈대아는 포악하고 자만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 응답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해명이 아니라, 악을 통한 또 다른 악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정의 실현 방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는 오히려 새로운 신정론적 긴장을 유발한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 큰 악을 사용하신다는 점에서, 예언자는 다시 묻는다. “정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¹⁴

12 하박국 1:5-11에서 갈대아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등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동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다시 읽는 하박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49를 보라.

13 갈대아를 통한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 실현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신정론적 난제를 낳는다는 논의는 Daniel C. Timmer, *The Theology of the Book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Old Testament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135를 보라.

14 하박국 1:12-2:1의 재탄원과 항의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역사 통치 방식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는 점은 Grace Ko, *Theodicy in Habakkuk: New Perspectives* (Milton Keynes:

이 구조는 첫 번째 긴장을 해결하기보다 확대한다. 유다 내부의 불의라는 문제는 바벨론이라는 외부의 폭력을 통해 더 심각한 문제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1:5-11은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신정론적 해답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질문이 더 깊어지는 역설적 구조 안에서 전개된다.

3) 예언자의 재탄원과 항의: 심판 방식에 대한 이의(1:12-2:1)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정결하심을 근거로, 갈대아와 같은 악한 민족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항의한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반응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사의 정당성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자 항의이다.¹⁵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행의 방식과 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이 두 번째 항의는 하박국서의 신정론이 단순히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라는 질문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질문은 이제 “왜 하나님은 더 큰 악을 통해 악을 심판하시는가?”라는 문제로 심화된다. 따라서 1:12-2:1의 구조적 기능은 신정론적 질문을 도덕적 불일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역사 통치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장하는 데 있다.

4)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 기다림과 신실함의 요청(2:2-5)

하나님은 예언자의 재차 항의에 즉각적인 해명이나 논리적 정당화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대신 비전의 언어로 응답하신다. “정한 때가 오면 지체되지 아니하리라”(2:3)는 선언과 함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2:4)는 말씀은 하박국서의 신정론을 새로운 국면으로

Paternoster, 2014), 85를 보라.

15 하박국 2:2-5가 즉각적 해명보다 기다림과 신실함의 응답을 요청한다는 논의는 Whitehead, 윗글, 274-275를 보라.

이끈다.¹⁶ 고난의 유예와 정의의 지연 사이에서 신자는 해답이 아닌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여기에서 완결되지 않으며, 기다림과 신뢰라는 신자의 윤리적 실존 속에서 실현을 기다린다.

이 응답의 구조적 의미는 신정론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하나님은 악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지연된 정의의 시간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 따라서 2:2-5는 신정론을 해명에서 수행으로 전환시키는 중심축이다. 이 지점에서 하박국서의 구조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를 신실한 기다림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구조가 된다.¹⁷

5) 화 선언의 구조와 보응 신정론의 전개(2:6-20)

하박국서 2:6-20은 다섯 개의 “화 있을진저”(חִי, 호이/화 있을진저) 선언을 통해 바벨론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¹⁸ 이 선언들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다. 바벨론의 탐욕, 폭력, 수치, 우상숭배는 궁극적으로 자기파멸로 귀결되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종말론적 차원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다. 이 반복적 구조는 하박국서가 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악의 질서가 결국 자기 붕괴로 나아간다는 보응의 논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을 보여준다.

이 화 선언은 예언자의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 응답으로 기

16 하박국 3장이 신현과 찬양을 통해 하박국서 전체의 신학적 응답을 형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Ko, 윗글, 81-82, 126-127을 보라.

17 하박국 3장을 1-2장의 탄식과 목시에 대한 신학적 결론으로 보는 논의는 G. Michael O’Neal, *Interpreting Habakkuk as Scripture: An Application of the Canonical Approach of Brevard S. Childs*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9; New York: Peter Lang, 2007), 116-117을 보라.

18 하박국 2:6-20의 “화” 선언이 바벨론의 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보응적 정의를 드러내는 구조라는 논의는 Lim, “Structural Analysis”, 59-60을 보라.

능한다. 1장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등장했지만, 2장에서 바벨론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 배열은 하나님이 악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악을 정당화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2:6-20은 하박국서의 신정론적 긴장을 부분적으로 재조정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연되지만, 악의 폭력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

6) 찬양 구조의 신학과 예배적 응답(3:1-19)

하박국 3장은 시편적 기도와 찬양의 형식으로 구성되며, 신현의 기억(3:3-15), 두려움과 기다림(3:16), 결핍 속의 기쁨과 찬양(3:17-19)의 흐름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구조적 기능만 확인한다. 3장의 찬양은 1-2장의 질문을 종료시키는 결론이 아니라, 질문과 항의가 신현의 기억을 통과하면서 예배적 응답으로 재배치되는 구조적 전환이다. 그러므로 하박국서의 질문-응답-재질문-재응답-찬양 구조는 단순한 문학 구성이 아니라 신정론적 긴장을 배열하고 전환하는 신학적 구조화 장치이다.

3. 장르로 본 하박국의 신정론

앞서 하박국서의 구조 분석을 통해 신정론적 긴장이 질문-응답-기다림-찬양의 흐름 속에서 배열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흐름은 단순한 사건 배열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하박국서는 질문, 탄식, 항의, 저주, 기도, 찬양이라는 다양한 발화 양식을 통해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 문제를 언어화한다. 본 논문에서 “장르”는 군켈과 베스터만의 양식비평적 통찰을 수용하되, 형식비평의 엄밀한 정형 장르라기보다 신정론적 긴장을 표현하고 전환하는 신학적 언어 형식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

www.kci.go.kr

한다.¹⁹ 앞 장이 신정론적 긴장의 구조적 배열을 다루었다면, 본 장은 그 긴장이 이러한 발화 양식 속에서 어떻게 언어화되고 변형되는지를 분석한다.

1) 질문(1:2-4; 1:12-17)

하박국서는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정면으로 질문하는 신정론적 문헌이다. 하박국 1-2장은 질문과 응답의 교차 구조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⁰ 그러나 이 대화는 단일 장르가 아니라, 질문·탄식·항의 등 복합적인 장르를 포괄하는 서술 양식이다. 예언자는 “어찌하여 악을 보시기만 하십니까?”(1:3), “어찌하여 더 악한 자로 의로운 자를 삼키게 하십니까?”(1:13)라고 반복하여 묻는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정의 실현의 지연이라는 신학적 불일치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대한 신뢰 안에서 제기된 신정론적 요청이다.²¹

질문의 장르적 기능은 신정론적 문제를 언어화하는 데 있다. 하박국은 침묵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에

19 양식비평의 고전적 토대에 대해서는 Hermann Gunkel, *The Psalms: A Form-Critical Introduction*, trans. Thomas M. Horn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을 보라. 탄식의 신학적 기능에 대해서는 Claus Westermann, “The Role of the Lament in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28, no. 1 (1974): 20-38을 보라. 본 논문은 이들의 양식비평적 통찰을 수용하되, “장르”를 엄밀한 정형 장르가 아니라 하박국서의 신정론적 긴장을 언어화하는 발화 양식의 의미로 확장해 사용한다.

20 하박국 1-2장의 질문과 응답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신정론적 긴장을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라는 논의는 Ko, 윗글, 76-77을 보라. 하박국서를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읽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Gert T. M. Prinsloo, “Reading Habakkuk as a Literary Unit: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ld Testament Essays* 12, no. 3 (1999), 518-520을 보라.

21 하박국서에서 예언자가 백성의 고통을 대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을 향한 대변자”로 기능한다는 논의는 Kevin G. O’Connell, “Habakkuk: Spokesman to God”,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6 (1979), 227-231을 보라. 하박국의 질문이 불신앙이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나온 신앙의 대화라는 점은 Gowan, 윗글, 40을 보라.

질문한다. 따라서 질문은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발화이다.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바로 이 질문의 언어에서 시작된다.

2) 탄식(1:2-4; 1:12-17)

하박국서의 탄식은 시편의 공동체 탄식 시와 개인 탄식 시 전통을 반영하며, 1:2-4와 1:12-17은 고통의 원인, 하나님의 침묵, 절박한 호소가 결합된 탄원 구조를 따른다.²² 하박국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신학적 절규로서 탄식을 구성한다. 질문이 논리적 추궁의 형태라면, 탄식은 그 질문이 고통으로 내면화된 정서적 언어이다.

탄식의 장르적 기능은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신학적 언어로 바꾸는 데 있다. 하박국은 백성의 고통을 설명하지 않고 먼저 울부짖는다. 이 울부짖음은 신정론의 실패가 아니라 신정론의 출발점이다. 악의 문제는 추상적 명제가 아니라 의인의 몸과 공동체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식은 하박국서의 신정론을 사변에서 실존의 자리로 끌어내린다.

3) 항의(1:12-2:1)

하박국서 1:12-17은 단순한 탄식을 넘어, 하나님의 정의와 현실 사이의 신학적 긴장을 정면으로 항의하는 본문이다. 예언자는 “주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나이까?”(1:13)라고 묻는다. 갈대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항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에 대한 신뢰에

22 하박국 1:2-4와 1:12-17의 탄식을 시편 탄원 전통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에는 Thompson, 윗글, 34-35; Westermann, 윗글, 21-22, 30을 보라.

서 비롯된 신앙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다.

항의의 장르적 기능은 질문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데 있다. 첫 질문이 하나님의 침묵을 문제 삼았다면, 두 번째 항의는 하나님의 응답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다. 이로써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에서 “하나님은 왜 더 큰 악을 통해 심판하시는가?”로 심화된다. 항의는 하나님을 떠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붙드는 말이다.

4) 저주(2:6-20)

하박국서 2:6-20에 나타나는 다섯 개의 “화 있을진저”(יִיחַ) 선언은 바벨론의 탐욕, 교만, 폭력, 수치,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이며, 예언자의 항의(1:12-17)에 응답하는 신정론적 심판 선언이다. 이 저주는 단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된다는 종말론적 확증이다. 바벨론은 단지 역사적 정복자를 넘어 반복되는 악의 구조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제시되며, 고난의 원인을 특정 사건을 넘어선 윤리적 현실로 일반화한다.

저주의 장르적 기능은 악의 현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재배치하는 데 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등장하지만, 저주 선언 안에서 다시 심판의 대상으로 드러난다. 이 장르적 전환은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악을 승인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저주는 하박국서의 신정론 안에서 중요한 균형을 제공한다. 악은 잠시 강해 보이나, 그 자체가 최종 질서가 될 수 없다.

5) 기도와 찬양(3:1-19)

하박국 3장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3:1)라는 표제로 시작되며,

www.kci.go.kr

시편의 탄원시와 찬양시 전통을 잇는 문학적 기도 장르에 속한다.²³ 본문은 고대의 신현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과거 구원 행위를 회상하고(3:3-15), 고난 중에 자비를 간구하며(3:2), 종말론적 신뢰를 고백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예언자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현재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앙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기도와 찬양의 장르적 기능은 신정론적 긴장을 예배적 언어로 전환하는 데 있다. 하박국의 찬양은 고난의 해결 이후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밭과 양과 소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의 근거로 삼는 고백이다. 따라서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의 결핍을 정직하게 말한 뒤, 그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을 수행한다.

이 점에서 하박국 3장의 찬양은 1장의 항의와 단절되지 않는다. 찬양은 항의를 지워 버리는 언어가 아니라, 항의가 신현의 기억과 기다림을 통과한 뒤 도달한 예배적 언어이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은 하박국서의 신정론을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기억할 수 있는 형식으로 확장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박국서의 문학 장르들은 단순한 형식상의 다양성이 아니라 신정론적 긴장을 발화하고 전환하는 장치이다. 질문과 탄식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고난을 언어화하고, 항의와 저주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의 문제로 확장한다. 이어 기도와 찬양은 신현의 기억을 통해 현재의 결핍을 예배적 응답으로 재배치한다.

따라서 하박국서의 장르 구성은 구조 분석에서 확인한 신정론적 흐름을 구체적인 언어 행위로 드러낸다. 하박국서는 고난을 이론적으

23 하박국서의 기도와 신현, 찬양이 책 전체의 문학적·신학적 결론으로 기능한다는 논의는 Thompson, 윗글, 38-42; O'Neal, 윗글, 116-117을 보라.

로 해명하기보다,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훈련한다. 이 점에서 하박국서의 장르 구성은 실천적 신정론의 문학적 형식이라 할 수 있다.

4. 믿음의 윤리와 정의의 지연

하박국서 2:4는 신정론적 응답이 가장 응축된 형태로 드러나는 본문이다. 고난과 항의, 침묵과 심판을 통과한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해명이나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기다림”과 “신실함”의 언어로 응답하신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2:3)는 명령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2:4)는 선언은 분리될 수 없다. 전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즉각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시간을 말하고, 후자는 그 지연된 시간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합 2:4는 악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답변이 아니라, 지연된 정의 앞에서 의인이 취해야 할 삶의 양식을 밝히는 본문이다.

1) אֱמוּנָה(에무나/신실함): 신념이 아니라 지속적 신실함

하박국 2:4는 하박국서의 신정론적 논증에서 전환의 본문이다. 예언자는 유다 내부의 불의와 바벨론의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묻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악의 기원이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본문은 두 종류의 삶을 대조한다. 히브리어 본문은 다음과 같다. “보라, 그의 אֱמוּנָה는 부풀어 올랐고 그 안에서 정직하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אֱמוּנָה로 살 것이다”(שָׁרָה נַפְשׁוֹ בּוֹ וְצַדִּיק בְּאֱמוּנָתוֹ יִחְיֶה) (הַגָּה עֲפָלָה לֹא-יִ). 이 구절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2:3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명령과 연결된 응답이다. 그러므로 2:4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정의가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말한다.²⁴

본문의 첫째 반구는 교만한 자의 שָׁנֵה(네페쉬/내면 또는 생명)을 묘사한다. עֲפָלָה는 ‘부풀어 오름’ 혹은 ‘교만하게 높아짐’을 가리키며, שָׁנֵה וְאֵלֵּי is 그의 שָׁנֵה가 “곧지 않다”는 판단을 덧붙인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왜곡된 삶의 방향이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높이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 바벨론은 역사 안에서 강력해 보이나, 그 힘은 곧음이 아니라 왜곡에 근거한다. 따라서 첫째 반구는 악인의 외적 번영을 인정하면서도, 그 번영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지속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둘째 반구는 이와 대조적으로 “의인”의 삶을 제시한다. חֵן וְאֵלֵּי בְּאֵמוּנָתוֹ וְזִדְדִּיָּק에서 חֵן은 단순 접촉보다 대조의 기능을 갖는다. 교만한 자의 왜곡된 שָׁנֵה와 의인의 אֵמוּנָה가 맞서며, “정직하지 않음”과 “신실함”이 병행적으로 대비된다. 이 대조 구조 때문에 אֵמוּנָה는 단순한 지적 동의나 내면적 확신으로 축소될 수 없다.²⁵ 본문이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느냐이다. 따라서 אֵמוּנָה는 의인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을 지속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חֵן וְאֵמוּנָה의 전치사 כִּי도 이 해석을 강화한다. 여기서 כִּי는 문맥상 단순한 수단으로만 한정되기보다, 의인의 삶을 특징짓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의인은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

24 חֵן이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속되는 삶의 양식을 가리킨다는 해석은 합 2:3의 기다림 명령과 2:4의 의인의 삶을 함께 읽을 때 가능하다. Whitehead, 윗글, 274-275를 보라.

25 의인의 신실함이 교만한 자의 왜곡된 내면과 대조된다는 점은 합 2:4의 병행 구조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Smith, 윗글, 104-106; Gowan, 윗글, 60-63을 보라.

라, 신실함 안에서, 신실함을 따라, 신실함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을 산다. 또한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사 **יְ**는 문맥상 가장 가까운 선행사인 **קָיָה**과 연결되어 “그 의인의 신실함”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קָיָה**는 지연된 정의의 시간 안에서 지속되는 삶을 가리킨다.²⁶ 물론 이 신실함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 성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끊지 않는 언약적 충실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합 2:4의 **אֱמוּנָה**는 추상적 “믿음”보다 “지속적 신실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본문은 하박국서의 신정론을 “해명”에서 “수행”으로 전환시킨다. 예언자가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그가 받은 응답은 교만한 자의 왜곡된 생존 방식과 대비되는 의인의 신실한 삶의 양식이다. “살 것이다”(יִחְיֶה, 이호예/살 것이다)가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속되는 삶의 양식을 가리킨다는 해석은 합 2:3의 기다림 명령과 2:4의 의인의 삶을 함께 읽을 때 가능하다.

2) 침묵 속에서 형성되는 믿음의 윤리

이처럼 합 2:4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정의가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 형성되는 실존적 정체성이다. 하박국이 직면한 침묵(1:2; 2:3)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 인간의 요청에 따라 즉시 설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드러내는 신론적 단서이다. 하박국서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신실함을 지속하는 삶이다.²⁷ 시편 73편의 시인이 성소에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는 것처럼(시

26 **קָיָה**를 지연된 정의의 시간 안에서 지속되는 삶으로 읽는 해석은 Whitehead, 윗글, 274-275; Ko, 윗글, 175-177을 보라.

27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이 신자의 기다림과 신실함을 형성하는 신학적 시간이라는 논의는 Crenshaw, 윗글, 16-17; Whitehead, 윗글, 274-281을 보라.

73:17), 하박국도 성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2:20), 지성적 해명이 아닌 신실함의 길을 택한다.²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 뒤에 동의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정의가 아직 드러나기 전에 미리 증언하는 삶의 방식이다.

3) 믿음의 신학적 함의

하박국 2:4가 함축하는 신학적 의미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본문은 의인의 신실함을 교만한 자(עֲפֹלָה לֹא־יִשְׁרָהּ)와의 대조 안에 위치시킨다. 의인은 악인의 변영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며, 지연된 정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태도이다. בְּאִמּוּנָתוֹ의 그 삶 영역을 나타낸다면, 의인은 신실함을 조건으로 충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이다.

셋째,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신뢰로 응답하는 삶이다. יִיָּהּ는 정의 실현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연된 시간 안에서 지속되는 삶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믿음은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의 방식이다.

넷째, 믿음은 성품을 형성한다. 교만한 자의 שָׁנָה는 바르지 않은 상태로 묘사되지만, 의인은 אִמּוּנָה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제시된다. 이 대조는 신실함이 일회적 결단이 아니라, 지연된 정의의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삶의 양식임을 보여 준다.

28 시편 73편과 하박국서의 비교, 곧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 예배적 또는 성전적 인식 안에서 재정렬된다는 관점은 Gowan, 윗글, 44-45를 보라.

이러한 믿음의 신학은 출애굽기 34:6-7에서 선포된 여호와와의 언약적 성품과도 신학적으로 공명한다. 출 34:6은 여호와를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묘사하고, 합 2:4는 지연된 정의 앞에서 의인이 신실함으로 살아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합 2:4의 신실함은 야웨의 자기 계시적 성품과 분리된 인간적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인의 관계적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²⁹

결국 하박국서의 믿음은 단순한 고난의 수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르는 실천적 응답이다. 이는 악이 난무하고 정의가 지연되는 현실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의인의 실존적 자세이다. 이러한 믿음은 고통을 해석하기보다 감당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예언자적 삶의 근거가 되며, 마지막 장의 찬양에서 공동체의 예배 언어로 확장된다.

5. 신현의 기억과 예배적 신정론

하박국서의 신학적 응답이 가장 응축된 형태로 드러나는 곳은 3장이다. 그러나 3장의 찬양은 1-2장의 항의가 사라진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언자의 항의가 신현의 기억, 거룩한 두려움, 신실한 기다림, 결핍 속의 기쁨을 통과하며 예배적 언어로 재배치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장의 과제는 하박국서가 단순히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본 장은 그 이동이 어떤 본문 내부의 논리와 문학적 장치를 통해 가능한지를 밝히는 데 있다.

29 여기서 출 34:6-7과 합 2:4의 관계는 직접 인용이나 문학적 의존 관계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과 의인의 응답적 신실함 사이의 신학적 공명으로 이해된다. 출 34:6-7의 언약 공식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Terence E. Fretheim,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1), 300-305를 보라.

1) 신현의 기억: 현재의 침묵 속으로 소환된 과거 구원

하박국 3:3-15는 고대 출애굽 전통을 반영하는 신현의 시적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⁰ 하나님은 “데만에서 오시며”(אֱלֹהֵי מִדְּמָן מְהִימָן), “바란 산에서부터” 임하시는 분으로 그려진다(3:3). 이 표현은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출애굽, 광야, 시내산 전승을 환기하는 기억의 언어이다. 예언자는 현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만, 신현의 시적 회상을 통해 과거에 이미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던 하나님을 다시 말한다.

이때 기억은 과거 사건의 회고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해석하는 신학적 행위이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의가 부재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 구원의 기억을 현재의 침묵 속으로 끌어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연되어도 폐기되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하박국 3장의 신현은 단순한 찬양 삽입이 아니라, 1-2장에서 제기된 신정론적 질문을 새롭게 배열하는 문학적 장치이다.³¹

하박국의 신현 묘사는 전사적 이미지 속에서도 중요한 신학적 대조를 담고 있다.³² 갈대아는 힘을 신격화하고 폭력을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삼지만(1:11), 야웨는 정의롭고 신실한 전사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다. 양자는 모두 “힘”의 언어로 묘사될 수 있으나, 그 힘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 갈대아의 힘은 탐욕과 파괴를 낳고, 야웨의 힘은 심판과

30 하박국 3:3-15가 고대 출애굽 전승과 신현 양식을 반영한다는 논의는 Thompson, 윗글, 38-42; Ko, 윗글, 126-127을 보라.

31 하박국 3장의 찬양이 1장의 항의를 무효화하지 않고, 항의가 신현의 기억과 기다림을 통과한 뒤 도달한 예배적 언어라는 해석은 Whitehead, 윗글, 279-281을 참조하라.

32 하박국 3:3-15의 신현 묘사와 전사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Thompson, 윗글, 38-42; Ko, 윗글, 126-127을 보라. 하박국 3장의 야웨 전사 이미지와 1장의 갈대아 군대 사이의 대조에 대해서는 Lim, “Identifications of the Enemy in Habakkuk”, 57-58을 보라.

구원을 통해 정의를 회복한다. 이 대조는 하나님의 정의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는 신실한 개입임을 드러낸다.³³

따라서 3:3-15의 신현은 하박국서의 신정론을 이론적 해명으로 풀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기억을 통해 현재의 침묵을 견딜 수 있게 한다. 하박국은 현재의 사건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할 수 없지만, 과거의 구원 행위를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지연을 완전한 부재로 오해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신현의 기억은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신학적 토대이다.

2) 두려움에서 기다림으로: 신현을 들은 자의 실존적 반응

신현 기억은 곧바로 승리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3:16에서 예언자는 극심한 신체적 동요를 고백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렸으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처소에서 내가 떨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에게 먼저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³⁴ 여기서 두려움은 불신앙의 표시가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들은 자의 실존적 반응이다.

그러나 바로 이 두려움이 기다림으로 전환된다. 3:16의 마지막 절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리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기다림은 2:3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명령과 연결된다.³⁵ 2장에서

33 하박국 3장의 야웨 전사 이미지와 1장의 갈대아 군대 사이의 대조에 대해서는 Dong-Weon Lim, “Identifications of the Enemy in Habakkuk”,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2 (2011), 47-64, 특히 57-58을 보라.

34 하박국 3:16의 신체적 떨림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실존적 반응이라는 해석은 Ko, 윗글, 126-127; Thompson, 윗글, 38-42를 보라.

35 하박국 3:16의 기다림과 2:3의 기다리라는 명령을 연결하여 읽는 논의는 Whitehead, 윗글, 279-280; Ko, 윗글, 126-127을 보라.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오지 않은 목시를 기다리라는 명령으로 주어졌고, 3장에서 예언자는 그 명령을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3:16은 단순한 감정 묘사가 아니라, 2:3의 명령이 예언자의 삶 안에서 내면화되는 장면이다.

하박국의 두려움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그 날을 기다리는 신실함으로 이동한다. 이 이동이 중요하다. 하박국서에서 기다림은 아무 근거 없는 인내가 아니라, 신현의 기억을 통해 형성된 신실함이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과거 구원을 기억하기 때문에 현재의 침묵을 기다림으로 견딜 수 있다.

3) 결핍 속의 기쁨: 현실 부정이 아니라 신학적 결단

하박국 3:17은 이 기다림의 현실 조건을 더 분명히 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는 진술은 회복 이후의 풍요를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경제적·농경적 생존 기반이 모두 붕괴된 상황을 열거한다.³⁶ 본문은 결핍을 축소하지 않는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가 차례로 사라지는 장면은 삶의 조건 전체가 무너진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3:18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는 고백은 현실의 부정을 통해 얻어진 낙관이 아니다. 본문은 결핍을 삭제하지 않고, 결핍의 총체성을 먼저 제시한 뒤에 찬양을 말한다. 이 배열은 하박국의 찬양이 고난의 해결 뒤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드러지는 선취적 응답임을 보여준다.

36 하박국 3:17-19가 결핍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쁨의 근거로 삼는 찬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Gowan, 윗글, 112; Ko, 윗글, 212를 보라.

3:18의 기쁨은 감정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신학적 결단이다. 예언자가 즐거워하는 근거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의 회복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다. 본문은 “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고 말함으로써 기쁨의 대상을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옮긴다. 이때 찬양은 악의 현실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악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정론적 응답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3:19는 이 찬양이 단지 내면적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능력임을 밝힌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고백은 예언자가 고난을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지형 속에서도 하나님이 견게 하신다는 신뢰의 언어이다. 하박국서의 마지막은 악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악이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다.³⁷

4) 예배적 찬양과 공동체적 신정론

하박국 3장의 찬양은 개인의 내면적 고백을 넘어 공동체 예배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하박국의 기도”(3:1)와 “나의 수금에 맞춘 노래”(3:19)는 이 본문이 예배적 사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³⁸ 이 점에서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개인적 사유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기억하며 노래하는 예배적 언어로 확장된다.

이 예배적 형식은 신정론의 성격을 바꾼다.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37 하박국서의 결말이 논리적 해답이 아니라 신뢰와 찬양을 통한 실천적 응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Cameron, 윗글, 25-29; Whitehead, 윗글, 280-281을 보라.

38 하박국 3장의 예배적 성격에 대해서는 Thompson, 윗글, 34-53; O’Neal, 윗글, 116-117을 보라.

악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예배로 나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악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가 어떤 언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배는 현실 도피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직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의를 기억하고 기다리며 미리 증언하는 공동체적 실천이다.

그러므로 하박국 3장의 찬양은 1장의 항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항의를 통과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다.³⁹ 예언자는 질문을 포기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제기했고, 하나님의 응답 지연을 견디며, 신현의 기억 속에서 기다림을 배웠기 때문에 찬양한다. 이러한 찬양은 값싼 화해가 아니라, 고난과 항의와 기다림을 통과한 신실함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합 3장의 논리적 이동은 분명하다. 신현은 과거 구원의 기억을 현재의 침묵 속으로 소환한다. 그 기억은 먼저 거룩한 두려움을 낳는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2:3의 기다림 명령과 결합하면서 신실한 기다림으로 전환된다. 기다림은 결핍의 현실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직면하게 하며, 그 직면 속에서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하게 된다. 마침내 이 기쁨은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부르고 기억하는 예배적 찬양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탄식이 찬양으로 귀결된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신현의 기억 → 거룩한 두려움 → 신실한 기다림 → 결핍 속의 기쁨 → 예배적 찬양이라는 본문 내부의 논리적 이동을 통해 형성된다.⁴⁰ 하박국 3장은 신정론적 긴장을 해소하지 않고,

39 하박국 3장의 찬양이 1장의 항의를 무효화하지 않고, 항의가 신현의 기억과 기다림을 통과한 뒤 도달한 예배적 언어라는 해석은 Whitehead, 윗글, 279-281을 참조하라.

40 하박국서의 신정론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현의 기억, 두려움, 기다림, 결핍 속의 기쁨, 예배적 찬양이라는 본문 내부의 논리적 이동을 통해 형성

그것을 예배적 언어 안에서 다시 배열한다. 이것이 하박국서가 실천적 신정론을 예배적 언어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하박국서를 통해 성서적 신정론이 악에 대한 철학적 해명보다, 지연된 정의 앞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의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침묵과 악인의 변영이라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언자의 항의, 하나님의 응답 지연, 의인의 신실함, 신현의 기억, 예배적 찬양을 통해 악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말하게 한다. 이 점에서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설명의 체계가 아니라 응답의 신학이다.

본 논문은 이 주장을 구조, 장르, 핵심어, 신현 찬양의 네 층위에서 전개하였다. 구조 분석은 질문-응답-기다림-찬양의 배열이 신정론적 긴장을 형상화하는 방식임을 밝혔다. 장르 분석은 질문, 탄식, 항의, 저주, 기도, 찬양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는 발화 양식임을 확인하였다. 합 2:4의 אֱלֹהִים 분석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선언이 내면적 신념이 아니라 지연된 정의 앞에서 지속되는 관계적 신실함을 뜻함을 보여 주었다. 합 3장의 신현 찬양은 탄식의 폐기가 아니라 탄식의 예배적 재배치임을 드러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유보된 신정론”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신정론”이다. 그것은 악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 설명을 유보하지만, 신앙의 응답을 유보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기여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Ko, 윗글, 126-127, 212; Whitehead, 윗글, 279-281을 보라.

는 그 응답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힌 데 있다. 하박국서의 구조는 신정론적 긴장을 배열하고, 장르는 그 긴장을 발화하게 하며, **קִינָה**는 지연된 정의 앞에서 의인의 삶의 양식을 제시하고, 신현 찬양은 그 삶을 공동체의 예배 언어로 확장한다. 이 네 요소가 결합될 때,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본문이 수행하는 문학적·신학적 응답으로 드러난다. 곧 그것은 악이 지속되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다리며 찬양하게 하는 신학적 수행이다.

그러나 하박국서의 신정론에는 여전히 후속 연구가 필요한 긴장이 남아 있다. 그것은 폭력(**כִּזְיוֹן**)의 문제이다. 예언자의 첫 질문은 폭력을 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항의이며(1:2-4), 하나님의 첫 응답은 바벨론이라는 더 큰 폭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선언이다(1:5-11). 또한 3장에서도 하나님은 열방을 타격하시는 신적 전사로 묘사된다(3:8-15). 따라서 향후 연구는 바벨론의 폭력과 하나님의 심판 행위 사이에 놓인 신학적 긴장을 더 깊이 다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박국서는 고난의 신비에 대한 지적 해답을 제공하는 책이 아니다. 하박국서는 응답 없는 하늘을 향해 질문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리며, 마침내 신현의 기억에 근거해 찬양하는 예언자적 믿음의 여정을 보여준다. 하박국이 가르치는 것은 고통을 쉽게 이해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법이다. 이 점에서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설명보다 응답, 해명보다 신실함, 결론보다 예배를 통해 수행되는 성서적 신정론이다.

참고문헌

- 구자용. 「12 소예언서의 이방 민족들: 이방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을 중심으로 본 12 소예언서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1 (2019), 54-91.
 기민석. “하나님의 폭력과 신정론: 구약의 천상의회와 천사론을 중심으로.” 『구약논

단』 29, no. 3 (2023), 11-52.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6.

김래용.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의 메시지의 연관성: 하박국의 불평과 야웨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 no. 3 (2024), 120-153.

박동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다시 읽는 하박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스미스, 랄프. 「미가·말라기: WBC 32」. 채천석·채훈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원저 Smith, Ralph L. *Micah-Malachi, Word Biblical Commentary 32* (Waco: Word, 1984).

악트마이어, 엘리자베스(Elizabeth Achtemeier). 「나훔-말라기: 현대성서주석」. 민경진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원저. Achtemeier, Elizabeth. *Nahum-Malachi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1986).

임동원. “하박국서의 문학적 분석: 구조와 주제적인 단어(Leitwort)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 (2002), 53-73.

카, 데이비드(David M. Carr). 「거룩한 회복 탄력성: 트라우마로 읽는 성경」. 차준희 옮김. 서울: 감은사, 2022. 원저 Carr, David M. *Holy Resilience: The Bible's Traumatic Origi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Allred, Brian. “Living in Light of Life's Perplexities: Lessons from Habakkuk.”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8 (2017), 177-182.

Athas, George, Beth M. Stovell, Daniel C. Timmer, and Colin M. Toffelmire, eds. *Theodicy and Hope in the Book of the Twelve*. London: Bloomsbury, 2021.

Brueggemann, Walter. “Theodicy in a Social Dimens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 (1985), 3-25.

Cameron, Charles M. “A Biblical Approach to Theodicy.” *Evangel* 10, no. 2 (Summer 1992), 25-29.

Crenshaw, James L. *Defending God: Biblical Responses to the Problem of Evi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Crenshaw, James L., ed. *Theodicy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83.

Everson, Joseph A. “The Canonical Location of Habakkuk.” In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edited by Paul L. Redditt and Aaron Schart, 165-174.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Fretheim, Terence E.,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1.

Fuller, David J. “Empirical Models for the Compositional History of Habakkuk”, 『구약논단』 30, no. 2 (2024), 238-266.

- Fuller, David J. "Tension and Resolution in Habakkuk: Linguistic Steps from Confusion to Healing." *Canon & Culture* 17, no. 2 (2023), 99-117.
- Gunkel, Hermann, *The Psalms: A Form-Critical Introduction*, Thomas M. Horner(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 Kim, Chwi-Woon. "Reading the Book of Habakkuk through a Lens of Cultural Trauma."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5, no. 2 (2020), 217-235.
- Ko, Grace. *Theodicy in Habakkuk: New Perspectives*. Milton Keynes: Paternoster, 2014.
- Lim, Dong-Weon. "Identifications of the Enemy in Habakkuk."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2 (2011), 47-64.
- Lim, Dong-Weon. "Structural Analysis of the Book of Habakkuk."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72 (2010), 69-86.
- McFarland, Ian A. "Theodicy." In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edited by Ian A. McFarland, David A. S. Fergusson, Karen Kilby, and Iain R. Torrance, 499-50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O'Connell, Kevin G. "Habakkuk: Spokesman to God."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6 (1979), 227-31.
- O'Neal, G. Michael. *Interpreting Habakkuk as Scripture: An Application of the Canonical Approach of Brevard S. Childs*.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9. New York: Peter Lang, 2007.
- Prinsloo, Gert T. M., "Reading Habakkuk as a Literary Unit: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ld Testament Essays* 12, no. 3 (1999), 515-540.
- Thompson, Michael E. W. "Prayer, Oracle and Theophany: The Book of Habakkuk." *Tyndale Bulletin* 44, no. 1 (1993), 34-53.
- Timmer, Daniel C., *The Theology of the Book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Old Testament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 Westermann, Claus. "The Role of the Lament in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28, no. 1 (1974), 20-38.
- Whitehead, Philip. "Habakkuk and the Problem of Suffering: Theodicy Deferred."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10, no. 2 (2016), 265-281.

검색어

하박국, 신정론, 유보된 신정론, 실천적 신정론, 신실함, 신적 전사

www.kci.go.kr

[ABSTRACT]

Why Do You Look on Evil and Remain Silent?: A Theodicy-Oriented Reading of the Book of Habakkuk

Ki-hyun Kim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is study reexamines the Book of Habakkuk from the perspective of theodicy, reading it not as a philosophical attempt to rationalize evil but as a theological movement of protest, waiting, and trust amid divine silence. Engaging Philip Whitehead's notion of "theodicy deferred," this paper argues that deferral in Habakkuk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mere postponement of an answer, since such a reading would leave the book's conclusion in unresolved silence. Rather, through a close reading of the book's structure, genre transitions, and key Hebrew terms, this study interprets deferral as a practical theodicy shaped by the enduring faithfulness of the righteous and the liturgical memory of the community.

The argument unfolds in four steps. First, the question-response-waiting-praise structure of the book is shown to stage theodicean tension in graduated form rather than simply resolve it. Second, the speech forms of question, lament, protest, woe, prayer, and praise are analyzed as theological modes that articulate and redirect this tension. Third, a syntactic analysis of Habakkuk 2:4 demonstrates that אִמּוּנָה denotes not merely inward conviction but enduring relational faithfulness in the time of deferred justice. The lexical resonance between אִמּוּנָה in Exodus

www.kci.go.kr

34:6 and אֱמוּנָה in Habakkuk 2:4, both related to the root אָמַן, further grounds the prophet's call for faithfulness in YHWH's covenantal self-disclosure. Fourth, the theophany in chapter 3 is shown to move through a five-stage internal logic: remembrance of past salvation, holy fear, faithful waiting, joy amid deprivation, and liturgical praise. Through this movement, lament is not abolished but reconfigured in liturgical form.

In sum, Habakkuk presents theodicy not as an intellectual doctrine but as a faith-shaped practice of endurance. The book invites its readers to respond to divine silence not with explanation, but with faithful endurance and praise.

key words

Habakkuk, Theodicy, Theodicy Deferred, Practical Theodicy, Faithfulness, Divine Warrior

투고일: 2026년 02월 01일

심사일: 2026년 05월 20일

게재 확정일: 2026년 05월 20일

www.kci.go.kr